

| | |
|------|--------------|
| 문서번호 | 교육문화과-107209 |
| 결재일자 | 2015.8.17. |
| 공개여부 | 대시민공개 |
| 방침번호 | |

| | | | | | |
|--------|----------------|------------------|----------------|--|--|
| 주 무 관 | 도 서 관 성 팀 장 | 교 육 문 화 과 장 직 | 기 획 재 정 국 장 | | |
| 이수경 | 유진숙 | 김미경 | 08/17 장기현 | | |
| 협 조 | | | | | |



도서관 내·외부 환경 및 이용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

- 안 건 : 동작구 도서관 환경 및 이용 실태조사 용역 관련 착수보고
- 일 시 : 2015. 8. 13.(목) 10:00 ~ 11:00
- 장 소 : 3층 기획상황실
- 참석대상 : 15명
 - 구청장, 기획재정국장, 교육문화과장
 - 시설관리공단 도서관운영팀장, 도서관장 3명, 사서 3명
 - 김기영교수 외 4명(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용역수행자)
- 주요내용 : 착수보고(김기영 교수), 질의·응답

기 획 재 정 국
(교육문화과)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

I 보고서 개요

- 일 시 : 2015. 8. 13.(목) 10:00 ~ 11:00(1시간)
- 장 소 : 3층 기획상황실
- 참석자 : 15명
 - 구청장, 기획재정국장, 교육문화과장
 - 시설관리공단 도서관운영팀장, 도서관장 3명, 사서 3명
 - 김기영교수 외 4명
- 안 건 : 동작구 도서관 환경 및 이용 실태조사 용역 관련 착수보고
- 진행순서 : 개최 ⇨ 구청장 인사말씀 ⇨ 김기영 교수 착수보고회 ⇨ 질의·응답 ⇨ 폐회

II 주요내용

- 구청장 인사말씀 및 당부사항
 -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으나, 구 재정이 열악함
 - ▶▶ 기존 시설을 활용한다면 시설투자 없이 도서관 확장이 가능하다고 여김
 - ▶▶ 도서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 요구를 한 발씩 앞으로 나가는 계기 마련
 - ▶▶ 참석자들이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태어 날 수 있도록 당부
- 김기영 교수님 발표
 - 과업의 개요, 내용, 수행계획, 추진일정 등으로 나눠 발표
 - ▶▶ 도서관 내·외부 환경 실태 조사 용역 착수보고 발표자료 참고
 - 도서관은 일상성1), 다양성2)을 갖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발전을 위해 필요함

1) 도서관의 일상성이란? 누구라도 언제나 아무일 없이 가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질의 및 응답

- 박인철(상도국주도서관장) : 조사기간이 짧다고 여겨짐, 조사기간 동안 주민, 사서 등을 만나 현안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 있는 지?
 - ▶▶▶ 답변 : 계획이 되어 있진 않지만, 환경 허락하는 한 간담회 진행예정
- 진혜진(사당솔밭도서관사서) : 현재도 도서관별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음.
 - ▶▶▶ 답변 : 도서관에서 현재 진행하는 만족도조사와 다름. 동작구에 집중된 욕구를 파악함. 특히 도서관 미이용 주민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 인터뷰 진행함. 설문조사는 만족도 조사이고 욕구조사는 요구 조사임
- 진혜진(사당솔밭도서관사서) : 심층면접조사와 관련한 대상자 선택 중요함
 - ▶▶▶ 답변 :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선정함에 따라 구청 협조 필요 특히 미이용자에 대한 조사는 서울도서관 개관 이전에 조사하여 다양한 요구를 얻음
- 박인철(상도국주도서관장) : 실태조사가 정책으로 반영된 사례 있는지?
 - ▶▶▶ 김기영교수 답변 : 3년 전 서울도서관 개관 이전에 서울시민의 도서관에 대한 요구 등을 조사하였고 박원순 시장이 청책(廳策)의 첫 번째 안건으로 정해져 광진도서관에서 진행한 이후 네트워크가 구성, 조례제정 등 기여한 것으로 여김
- 김유승(중앙대교수) : 2013년 도서관 정책에 참여 당시 도서관 건립 중심이었고 도서관을 채우는 것에 대한 고민이 없어 아쉬웠음. 동작구 도서관 여건은 타구 대비 매우 열악하나 주민의 요구 수준은 높음. 조사 기간 중 사서와 오피니언 리더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할 것임
- 구청장 : 도서관 실태조사를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우리 도서관 현 위치를 알고 어떤 모습으로 주민에게 다가갈지, 어떤 정책이나 모습을 지향할 것인지, 어떤 자세로 나아갈지 등을 고민하여야 함. 이번 용역 결과물에 따라 2016년까지 3단계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 기획재정국장 : 구 재정이 열악하여 (결과물)이 하드적인 경우는 한계가 있음을 고려

- 박영숙(느티나무도서관장, 자문위원) : 주어진 예산으로는 정책 반영의 한계가 있으며, 동작도서관과의 협력관계가 있는 지 알고 싶으며, 구청장님이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상이 있는 지 부탁
 - ▶▶▶ 구청장 답변 : 주민들이 집 가까운 곳 도서관을 요구하지만, 왜 도서관이 있는데도 없다고 할까 의문이 생겼음. 관내 학교, 사립도서관을 개방하고 동 주민센터, 공동주택 문고 등을 네트워크하면 도서관 건립처럼 대규모 예산 투입하지 않고도 도서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여김. 도서관에서 확대하여 주민 커뮤니티와 평생교육의 장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함
- 박영숙(느티나무도서관장, 자문위원) : 그 동안 지자체를 보면 '의지'가 변화를 끌어내는 것 같음 또, 학교, 사립도서관의 협력을 이끌기 위해서는 섬세한 노력이 필요하며, 네트워크보다 지금 있는 도서관이 자리를 잡는게 먼저임. 오늘 착수보고회에 지역 도서관 단체 등은 없이 구청 관계자, 도서관 종사자 분들만 참석하였음. 지역내 관련 단체 궁금함
- 오문환(시설관리공단 도서관운영팀장) : 시설관리공단은 도서관을 비수익으로 여겨왔으나, 새 이사장님 취임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음, 동작도서관과는 한 책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분기별 업무 협의를 하고 있음
- 교육문화과장 : 2016년도 동작도서관과의 연계를 위하여 상호대차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시비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시와 시 교육청 협의 완료되지 않아 어렵다는 의견을 들었음. 서울시와 시교육청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함. 관내 도서관 단체로 도토리, 도서관별 동아리 등이 활발하게 활동중임. 착수보고회에 주민 미참석에 대해 지적하셨는데, 중간 보고를 주민 참석하에 보고회를 개최할 것인지에 대해 김기영 교수님과 의논하여 검토하겠음
- 김기영교수 : 마지막으로 동작구를 도서관의 관점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실태조사의 방향을 정하고 있음

붙임 : 1. 동작구 도서관 환경 및 이용 실태조사 발표 자료

2. 착수보고회 참석자 명단 1부. 끝.